2026년 9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울산 MBC

'26년 9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울산문화방송(주)

1. 회의개최

연번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9	9. 15	4층 회의실	8명/ 총 14명	6명		14명	○		

o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 김동민, 박성찬, 손영철, 송인옥, 이대원, 이희승, 초금향, 황찬규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 : 유해진(사장), 옥민석(경영기술국장), 설태주(방송제작국장), 이상욱(광고사업국장), 박준영(편성제작팀장), 최지호(보도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시정요구) 및 시청자권익보호 등의 논의 안건(건수)

방송 편성	채널 구성·운영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	4	2	-	-	6	-	6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계
건 수	4	2	0	6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1 건	1 건	
방송편성			
보도	o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줄서기 언론사들이 눈에 띕니다. 특히 JCN이 유튜브 콘텐츠를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울산MBC는 어떻게 대응하는가요?	o 뉴미디어 강화로 민선 9기 업무회의, 브리핑 라이브 현장 등 업로드 하고 있음.	8월
교양			
연예·오락			
기타			
자체심의			

라. 시청자위원회의 시청자 권익보호 및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처리실적

안 건 내 용	조치(개선)내용	비고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울산문화방송 홈페이지	시청자위원회 월간운영실적	인터넷

나. 상시의견수렴 실적

상시의견수렴방법*	내용**

당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방송편성					
채널 구성·운영					
보도	o 지역 의사제 2027년 울산의대 부울경 5명 배정, 졸업 후 울산 10년 의무 근무는 0명, 지역 의사제 제도 자체를 이해하기 어려운 뉴스였습니다. 2031년까지 1명 증원되는데 이후 더 공론화 될 수 있도록 후속 보도하면 좋겠습니다. (위원 박성찬)	o 지역 의사제에 대해 리포트 연속 기획 3편을 방송했습니다. 울산대 의대가 지역 필수 의료 의사 5명을 내년에 선발하는데 이 학생들은 졸업을 하고 경남 권역으로만 의무 근무를 하게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보도 이후 진보 시민 연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울산MBC 보도로 공론화가 이뤄지고 있고 지역사회에 이런 사실이 문제 제기되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울산의대와 울산시 등은 의료 소외 지역인 울주군에 지역의사가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감시할 수 있도록 후속 보도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		
	o 동구 외국인 노동자 저녁 놀이문화, 편의점 음주 고성방가 문제, 자율방범대 이슈, 외국인 노동조합 집단행동이 우려됩니다. 울산여상과 미용예술고 통합 갈등을 보도했습니다. 교육의 경쟁력과 실리, 동문회의 정체성 등이 충돌한 상황입니다. 울산여상 동문회 측은 미용계열 남학생 진학, 뷰티업계 전반의 과정은 찬성은 하지만 교명만 바꾸지 말라는 입장입니다. 이해당사자 전반의 입장을 다 다뤘으면 합니다. (위원 김동민)	o 동구 지역 외국인 노동자 동향을 취재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술집, 식당 등을 가서 돈을 쓰기에는 아깝고, 편의점 등에서 저렴하게 술과 안주를 해결하는 것 같습니다. 112, 119 신고 건수 위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울산여상과 미용예술고 통합은 울산교육청이 공청회,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관계된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후속 보도를 할 예정입니다.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o 환율 체크를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1500원대 환율이 1300원대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산업계의 희비가 엇갈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확한 분석은 좋았지만 소상공인 중소사업장도 환율의 영향을 받는 실정도 같이 포함해주면 좋겠습니다. (위원 황찬규)	o 소상공인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통계로 산출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대기업, 수출입 기업 위주로 통계가 제공되다보니 한계가 있지만, 사안 사안마다 중소상인들의 현장 반응 등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o 김상욱 시장 MBC 라이브 왔는데 공영방송 MBC 촬영팀이 JCN이나 다른 팀에 밀리는 것 같았습니다. 현안에 대한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울산 브리핑 김상욱 시장과 시의회 부분을 유심히 봤습니다. 양 측의 입장을 골고루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하나의 주제를 계속 보여주는 게 참 좋습니다. 세계음식문화관 6개월 만에 폐쇄된 부분 상당히 좋았습니다. 스마트 PM 전용 주차장에 대한 뉴스, 주차장을 만들어 버리면 겉으로만 주차하고 충전하겠지 하는 막연한 사업 발상이 문제라고 생각 됩니다. (위원 손영철)	o 뉴미디어 강화로 민선 9기 업무회의, 브리핑 라이브 현장 등이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사업들을 새롭게 재편하는 소식이 이슈가 되고 있어 이 부분 즉각 대응할 예정입니다. 퍼스널 모빌리티 PM 주차장은 울산시가 기업 지원을 받아 조성했지만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PM 자체가 이동에 특화된 주차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이동수단이라는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주차장이 도심에 들어선 셈입니다. 방치,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교양	o 울트라 <초선의원 동행기>에서 중구의회 의원이 민원 현장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장면이 방송됐는데, 잠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 노출됐습니다. 비록 짧은 장면이고 의도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방송을 통해 안전벨트 미착용 모습이 그대로 노출될 경우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o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선의원 동행기>에서 의원이 민원 현장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장면이 잠시 방송됐는데, 해당 장면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 노출됐습니다. 의도적으로 안전벨트 미착용 장면을 보여주려 한 것은 아니었지만, 시청자들에게는 안전벨트 미착용을 묵인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공영방송에서 정치인의 활동을 밀착 취재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출연자의 행동이나 현장 모습에 대해서도 제작진이 좀 더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위원 초금향)	보여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작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하게 확인했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영방송에서 지역의 정치인을 다루는 프로그램인 만큼 출연자의 행동 하나하나가 시청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촬영 및 편집 과정에서 교통안전이나 법규와 관련된 장면이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 확인과 편집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o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서덕출 창작동요제>를 비롯해 울산MBC가 지역의 문화예술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방송은 지역의 문화와 역사, 예술인과 시민들의 활동을 기록하고 이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울산MBC가 지역문화 영역에서 공적 기여를 어떻게 확대해 나갈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승)	o 지역문화 영역에 대한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자치단체의 예산 문제로 인해 한동안 중단됐던 <서덕출 창작동요제>가 내년에는 다시 부활하게 됐습니다. <서덕출 창작동요제>는 20년 가까이 축적해 온 역사와 이야기가 있는 만큼, 단순히 행사를 재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동안의 축적된 서사를 바탕으로 어린이뿐만 아니라 울산시민 모두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울산의 대표적인 창작동요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 지역문화 영역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울산의 독립운동가 박상진 의사를 소재로 한 대형 뮤지컬 제작입니다. 박상진 의사는 울산이 배출한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이지만, 그 역사적 의미에 비해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져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상진 의사의 삶과 독립운동을 방송 다큐멘터리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고, 시민들이 직접 보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고 느낄 수 있는 뮤지컬이라는 문화콘텐츠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내년 8·15 광복절을 계기로 갈라콘서트를 선보이는 것을 시작으로, 이후 울산을 비롯해 광주와 서울 등으로 공연을 확대해 박상진 의사의 삶과 독립운동의 의미를 전국에 알리는 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울산MBC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자산을 단순히 방송으로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요·뮤지컬·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로 재해석해 시민들과 공유하고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방송의 공적기여라는 측면에서도 울산의 문화적 자산을 발굴하고, 기록하고, 새로운 콘텐츠로 만들어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이 울산MBC가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예・오락(스포츠)					
기타					
자체심의 규정					